

매일 왕복 4시간…특수학교 학생 ‘전쟁같은 등·하교’

특수학교에 다니는 중증·최중증 장애 학생들에게는 ‘등굣길’이 ‘고통길’이나 다름없다. 특수학교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니 1~2시간 통학 버스를 타야 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몸을 가누기 힘든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도 이같은 ‘고통의 통학길’을 감수해야 한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해야 끝나는 통학길이다. 이동권과 학습권 보장이 절실한데, 교육청은 10년 넘도록 말 뿐이다.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매일 새벽 등굣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장애 아이들을 따라 가보고 특수학교 통학버스 현황과 실태, 대책 등을 살펴본다.



〈상〉 영광·함평 등굣길 따라가 보니

영광에 사는 A(15·지적장애·중학교 3년)군은 특수학교에 가기 위해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난다. 오전 6시 40분에 집 인근에 오는 학교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A군 집에서 학교까지 22km 정도 걸리니, 곧장 학교로 가면 승용차로 30분 남짓 걸리지만 통학 버스로 가려면 매일 2시간 넘게 버스를 타야 한다. 통학 버스가 A군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학생 30여명을 태우려고 빙빙 돌다보니 운행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 A군의 통학 버스 탑승 시각에 맞춰 집안은 매일 전쟁터가 된다. A군을 깨우고 식사와 옷, 가방 등을 챙겨 마을 입구까지 뛰어나가기 시작한 게 벌써 8년이 넘었다. 버스에 타서는 지루함을 견뎌내야 한다. 창밖의 풍경만 2시간 넘게 바라보고 있어야 학교에 닿는다. A군이 탄 통학버스는 영광군 염산면을 출발, 아월리·두우리·군서면 만금리·영광한전을 거쳐 함평으로 넘어선 뒤 해보사거리·성대마을 등을 지나 학교까지 오전 8시 45분에 도착했다. 광주일보가 A군이 탄 버스를 따라 가보니 이곳저곳을 들렀다 학교에 도착하는 데 2시간 5분이 걸렸다.

6시40분 통학버스 타려 새벽 기상 영광·함평 빙빙 돌아 8시45분 도착 휠체어 리프트 없어 힘겹게 탑승 장시간 탑승에 화장실 애로사항도 학부모들 노선·차량 개선 요구에도 교육청은 10년 넘게 예산 타령만

버스 타고 가는 시간이 길다 보니 A군 등 부모들은 용변을 참지 못할 걱정에도 물 먹이는 것조차 걱정한다. A군의 어머니는 “직접 차로 데려다주면 25분 거리인데 2시간 이상 빙빙 도는 통학버스를 타고 등교하는 실정”이라며 “오래 차를 타다보니 무엇보다 화장실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아 날마다 걱정”이라고 말했다. 멀고 먼 등굣길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더욱 가혹하다. 전남의 B특수학교를 다니는 초등학생 C(뇌병변 장애)군은 매일 오전 7시 전부터 휠체어를 타고 차로 15분 걸리는 통학버스 정거장까지 가야 통학버스를 탈 수 있다. 휠체어를 타고 가야 하지만 통학버스는 휠체어 리프트가 없어 매일 C군 부모와 버스 기사가 휠체어를 들고 버스에 태워준다. C군이 탄 차량을 따라 학교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도 두 시간이 넘었다. C군 어머니는 “왕복 4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몸이 불편한 아이들이 어떻게 다니겠냐. 1학년 때부터 몇 차례 건의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전남지역 특수학교는 모두 9곳. 여수여명·순천선혜·나주이화·광양햇살학교 등 공립학교 4곳과



전남 지역 특수학교에 다니는 A군은 오전 6시 40분께 마을 앞에서 통학 버스를 탄다. 2시간 이상을 타야 학교에 도착한다.

목포인성·덕수·소림·은광·함평영화학교 등 사립학교 5곳이다. 하지만 학교를 다녀야 할 장애인 학생은 훨씬 많아 A군처럼 장거리 통학을 감수해야 한다. 함평영화학교의 경우 영광 방면 2대, 장성 방면, 무안 방면으로 총 4대가 운행하는데, 영광~무안·장성~함평 등 4~5곳 사·군의 학생들을 태우고 가야 하는 탓에 버스 운행 시간이 길 수 밖에 없다. 1호차(무안, 함평방면)는 첫 정거장에서 6시 10분께 탑승하면 학교에 8시 45분에 도착, 2시간 30분이 넘게 걸리고 다른 차량도 2시간 30분, 1시간 50분 등을 타고 앉아 있어야 한다. 소림학교도 차량별로 1시간 10분에서 1시간 30분이 걸리고 은광학교 1시간 50분, 덕수학교도 1시간 20분이 걸린다. 여수여명학교 등은 공립학교로 시내권 학생들을 주로 태우기 때문에 1시간 안

팍의 시간이 걸린다. 버스에 아이를 태우는 학부모들 속도 타들어간다.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은 아이들이 몇 시간 걸리는 버스 안에서 답답하게 앉아있는 것도 걱정되는데, 화장실 등을 가지 않고 참아야 하는 것도 불안하다. 집중력을 높이기 어려운 장애학생이 신체적으로 피곤한 상황에서 학교 생활을 하다보니 학습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노후화된 통학버스도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전남 특수학교들의 차량 연한은 11년을 넘진 않았지만, 운행거리리는 30만~40만 km를 훌쩍 넘는 게 대부분이다. 함평영화학교의 경우 37만~42만여km, 덕수학교 30여만km, 소림학교 40여만km, 목포인성학교 10여만km, 여수여명학교 임차 버스 1대는 38만여km 등

전남 곳곳을 돌다보니 수십만 km를 탄 노후화된 버스가 많다. 휠체어 리프트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대부분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수학생 학부모들은 매년 통학 노선과 차량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지만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나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한다.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최소 14년에서 17년을 다니는데, 매년 같은 내용을 건의해도 교육청은 예산 타령만 하고, 학교측에서는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 뿐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부모는 “하루하루 전쟁같은 등하굣길이 졸업해야 끝날까 싶다”며 “통학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오가면서 학습권을 보장받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설치해 달라”

광주장애인단체 가두행진 이동권·접근권 보장 촉구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420공동투쟁단은 ‘420장애인차별철폐의 날’(20일)을 맞아 지난 18일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를 위한 ‘광주420대회’를 열고 가두행진을 벌이며 이동권과 접근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버스에 휠체어 리프트를 장착해 달라는 요구를 금

호고속이 외면하고 있다”며 “광주시와 금호고속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영준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이동할 권리, 당연한 권리를 위해 지난 7년 2개월 동안 싸워왔지만 시간이 흘러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이 도시의 온전한 시민으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투쟁단은 이밖에도 차량 1대당 8시간 근무 운전원 2.5인 확보, 광역이동전용차량 24사·즉시콜 기

반 실시 등 이동권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했다. 또 광주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확대, 실효성 있는 ‘제3차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계획’ 수립, ‘광주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대한 조례에 따른 공공의료 체계 구축 등을 요구했다. 또 학교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과 ‘광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조례’ 전면 개정 등 교육권 보장과 ‘광주시 여성장애인 기본조례’ 제정 등 장애여성 권리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협력TF 구성, 중증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여수 섬에서 복어 먹은 낚시객 3명 중독 증세

이송 치료...1명은 전신마비 증세 여수 한 섬을 찾은 낚시객 3명이 시장에서 구입해 가져온 복어를 요리해 먹고 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20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5시 40분께 여수시 남면 연도에서 복어를 먹은 60대 A씨 등 3명이 복어독 중독 증세를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비함을 이용해 신고 2시간만에 섬에서 22km 떨어진 육지로 옮겨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신마비 증세를 보였고, 60대 남성 1명과 여성 1명은 안면부 마비 증상을 보였다. A씨 등은 여수 시장에서 구입한 참복어를 조리해 먹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복어는 맹독을 품고 있어 복어 요리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손질할 경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제대로 손질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여수경찰은 해경에서 사건을 인계받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초불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